

## 인적재난에서 재난전조 정보관리



이 영 재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2008년 중국 쓰촨(四川)성을 덮친 지진이 일어나기 몇 일 전 수십 만 마리의 개구리와 두꺼비가 떼를 지어 이동했다는 보고와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전에 수많은 동물들이 고산 등지로 피해 이동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었다는 사후약방문 격의 보고들이 있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부인할 수 있는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목격되는 등 재난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전조’를 동반하곤 한다.

인적재난이란,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한 화재, 전기, 교통, 추락, 가스, 침몰, 사고 등이 있다. 이런 인적재난의 경우는 일단 사건(incident)이 터지고 나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적재난의 전조에 대한 대응의 필요는 더욱 커진다. 2008년 재난연감(소방방재청)에 의하면, 인적재난으로 사망자 7,414명, 부상자 348,418명, 피해액 4,727억원으로 그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이런 직접적인 피해 외에 희생자의 가족들의 고통까지 감안한다면 그 피해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이런 재난을 조금만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는 점에서 조금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물론, 인적재난 역시 자연재난처럼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적재난이 일어날 것 같다는 조짐을 보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전조라는 것이 단순하게 드러난 것들에서만 끄집어 낼 수 있는 쉬운 작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

고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적재난 전조 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즉, 인적재난 전조 관리는 시간, 예산, 일할 수 있는 인력 총원 등 많은 자원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왜 지금 인적재난에 대한 전조의 관리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 인적재난은 사람의 존귀한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우리도 이제는 인적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데 우리는 더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관련 법규들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왔지만, 최근까지도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적재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응과 복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리 재난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에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와 신문과 같은 매체의 보도 내용등을 통해 전조를 발견하여 재난을 미리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에서의 인적재난은 더 이상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작년 부산 실내실탄 사격장에서 화재가 나 일본인 관광객 8명 등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일본인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한 일본 총리까지 이 일을 언급하여, 사태가 한일간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까지 있었다. 이에 총리를 포함한 많은 장관들이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하여 국가적인 위상의 실추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한국 방문객 수가 주춤하는 일로 연결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는 컸다. 이처럼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적재난의 피해 대상자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난으로 인한 문제 외에 외교문제와 같은 더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인적재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취약성과 위험요소들을 발굴해내고 이런 재난들이 보였던 전조들이 무엇이었는지 역추적하여 사전에 손쓸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 보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적재난도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전조를 관리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적재난을 면밀히 살펴보면, 재난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로 세분해볼 수 있다. 즉,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 피해 건물 및 시설물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눈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건물과 시설물에 관련된 법령과 소유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등 복잡하지만 의미있는 관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맵 형태로 도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속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전조들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관리한다면 인적재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재난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수많은 전조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 다만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이 재난이 일어날 조짐으로 알더라도 딱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라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된 책 ‘하인리히 법칙’에서 언급한 하나의 사고(incident)가 일어나기 전 29번의 경고(incident)가 있었으며, 300번의 징후(irregularity)가 있다는 일반 산업쪽의 안전에 대한 내용과 맞물려 생각해 볼 때, 분명 인적재난에도 하나의 재난에 29번의 경고가 있고, 300번의 전조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인내의 작업이다. 따라서 인적재난 전조 관리는 주먹구구식의 대응과 임기응변적인 작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인적재난 전조 관리가 진행될 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이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해 본다.